



## 간추린 청렴 소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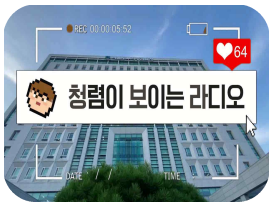
### [1] 대검, 전국 청 '청렴 업무 담당자 교육' 실시

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 '21. 11. 8. ~ 11. 9. 일선 청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

검찰 청렴정책 등 알찬 강의로 이론을 익히고, 분임별 토의 시간을 통해 청렴에 한걸음 더 다가선 시간이었습니다.

### [2] 서울동부지검, '청렴이 보이는 라디오' 방송



검사장이 직접 청렴일화를 소개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퀴즈를 출제하는 청렴 영상을 송출하여 직원들에게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.

기관장이 직접 진행자가 되어 청렴일화를 소개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 : )

### [3] 성남지청, '청렴 한 줌' 샌드아트 공연 관람

청렴 및 청탁금지법을 내용으로 한 샌드아트 공연을 관람하고, 그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'청렴 한 줌'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

청렴을 내용으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기관장의 샌드아트 시연으로 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. ♪

### [4] 진주지청, '청렴감상문' 선정 및 홍보



전 직원이 청렴 강좌를 시청한 후 청렴감상문을 제출하고, 기관장이 직접 선정하여 격려하였습니다.

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청렴하게 살아야겠다고 또 다짐했습니다.

- 선정작 중 일부 발췌 -



## 알아두세요

### 반부패 청렴 O-X 퀴즈

'반부패 청렴 의식'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는 것! 다들 알고 계시죠? 간단한 문항의 OX퀴즈로 청렴 소양을 확인해보세요!



1. 공직자가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-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된다. ( )
2. 공직자가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. ( )

(정답) 1. X, 연주회-전시회에서의 연주-공연-전시 문화예술행위로서,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/ 2. X,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,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###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!

## 감성충전, 청렴 명대사

### 드라마 '디어 마이 프렌즈' 대사 중

누가 그랬다.  
우린 다 인생이란 길 위에서 있는 쓸쓸한 방랑자라고,  
그리고 그 길은  
"되돌아갈 수 있는" 길과 "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" 두 갈래 길로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,  
어떤 길은 이미 지나쳐 왔어도  
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어서  
즐거운 설렘이 되고 기쁨이 되고  
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찬란한 희망이나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,  
어떤 길은 이미 너무 멀리 와서 혹은 이미 돌아가는 길이 가로막혀  
되돌아가려야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.

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합니다. 분명한 것은 부패의 길은 "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" 길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자칫 부패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.

청렴 상식이 쑥쑥!

##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

### 남극 황제펭귄의 겨울나기



지구의 가장 남쪽 끝, 남극. 이곳의 연평균 온도는 영하 55°C로 더우면 영하 35°C, 추우면 영하 70°C를 밑돈다고 합니다. 그런 남극의 겨울에 알을 낳고, 태어난 새끼를 키우는 유일한 동물은 **황제펭귄**입니다.

암컷은 알을 낳은 후 먹이를 찾아 바다로 떠나고, 수컷은 암컷이 돌아오기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알과 갓 태어난 새끼를 돌봐야 합니다. 이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
바로 "**허들링(Huddling)**"입니다.

허들링이란, 알을 품은 황제펭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의 겨울 추위를 견디는 방법으로, **무리 전체가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것**입니다.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질 때 서로의 위치를 바꾸므로 한겨울의 추위를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.



출처 : 이미지 사이언스

만약, 모두가 따뜻한 안쪽에만 가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다들 것이며, 바깥쪽의 펭귄들은 혹한에 얼어 죽게 되고, 결국 모두 동사하게 될 것입니다.

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 대신, 함께 온기를 나누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이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.

이 마음이 전해져 따뜻함 가득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♥

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

## 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OOO 센터에서는 **검찰청에 방문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**을 실시하여,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OOO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*OOO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?**

- ① 클린콜    ② 형사보상    ③ 피해자지원

※ **힌트 : Monthly청렴 2021년 11월호를 참고하세요~**

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

**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**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
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
★ 응모기간 : 2021. 12. 20.까지
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11월 정답은 **㉠ 심리적 안전감**입니다.
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. ^^



**축!  
당첨**

여OO(대검), 김OO(서울고검), 김OO(서울중앙), 정OO(서울북부), 박OO(수원고검), 김OO(대전), 이OO(부산), 전OO(울산), 박OO(강릉), 김OO(외부)



## 민원인의 목소리

담당직원들이 친절하다는 느낌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일찍 방문을 해도 기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한참 기다려야 되고, 일정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.



서로를 위해서 정해진 일정은 지켜지도록 조금 더 신경쓰고,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.

관공서를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친절함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업무를 너무 잘 보고 왔습니다. 꼭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


부천지청 열람등사(수사중)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

